

## 4차시. 속도위반 사고

###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속도위반 사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벌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속도위반 관련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 1. 개요 - 속도위반의 개념

#### 1.1 속도위반 사고의 정의

: 제한속도의 20km/h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며, 11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벌한다.

#### 1.2 속도위반 사고의 유형

가. 운전자 과실

- 다음의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0km를 초과한 경우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구간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 최고속도 2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결빙,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최고속도 50/100을 줄인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경우

나. 피해자적 요건

- 20km/h 초과된 과속차량에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다. 장소적 요건

- 도로나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에서의 사고

라. 안전표지 시설물

- 지방경찰청장장이 설치한 안전표지 중 최고속도 제한표지, 속도제한 표시

### 2. 대표 사고유형

- (1) 폭우로 인해 미끄러진 전방차량을 빨리 지나치기 위해 과속하였으나 충돌 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 가해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노면이 미끄러운 빗길 고속도로에서는 감속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

(2) 야간 고속도로에서 과속 중 전방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선행사고로 인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 3. 사례

(1)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제한속도를 위반하기만 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가?

-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인명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단순 대물피해만 야기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속도위반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운전자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2) 가해차량이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과속을 문제 삼는 경우 과속차량의 책임이 큰가?

- 그렇지 않다.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원인은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일 뿐, 과속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속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05.13. 선고 2005다7177 판결 등)



## 4. Q&A

노면 결빙 상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여 운행하였으나 사고발생시 주의의무를 모두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가?

- 제한속도 준수와 기타 전방주시의무나 안전거리유지의무와 같은 다른 주의의무의 준수 문제는 별개다.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 5. 안전가이드 Tip

- ① 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 ② 전방의 시야가 불량한 지역을 통과할 시에는 감속운행, 앞지르기 금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도로의 정해진 제한속도 내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행한다.
- ③ 운전 중 빗길, 눈길, 터널, 회전구간에서 속도를 최고 속도의 20~50% 감속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앞 차의 주행흔적에 따라 뒤를 밟도록 한다.
- ④ 운전 중 앞차의 동향과 그 전반 상황을 보고 앞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할 것을 미리 예측한다.
- ⑤ 대형차량의 경우(버스, 트럭 등) 전방 상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차 사이 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한다.
- ⑥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⑦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발생시 2차 사고 등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비하고 사고 안내표시 등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 ⑧ 과속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더욱 좁아져 사실상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주의한다.
- ⑨ 과속해도 도착시간은 별 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 ⑩ 커브길이나 터널에서는 감속운전을 하도록 하며, 커브 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한다.